



미국에 왔습니다.

막내 택함이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키국에서 9 년간의 학창시절을 말 그대로 뜨겁게 불태워 누구보다도 열심히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합니다.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시즌마다 농구, 축구, 배구 학교 대표로, 그리고 교회 Youth Group 리더와 학교 학생회장의 역할까지 숨쉴틈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몸소 보여준 지난 2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비취책을 떠나는 날까지 아침부터 택함이는 친구들과 만났고 저희는 저녁 10 시에 짐을 챙겨 공항으로 나가는 길에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있는 택함이를 데리러 시내에 나갔습니다. 길가에 나와있는 택함이가 멀리서 우릴 보고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려고 한 명과 포옹하는 순간 주위에 있던 나머지 4 명도 순식간에 달려들어 모두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섯명이 하나가 되어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안은 그대로 좋아서 어쩔줄 몰라 방방 뛩니다. 마치 월드컵 금메달 딴 것 처럼. 9 년동안 함께 했던 6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애뜻한 마음을 가졌으며 헤어지는 그 순간을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지켜보는 아빠도 아쉬움과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한 명씩 일일이 꼬옥 안아주고는 그제서야 아쉬움을 뒤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

택함이와 동갑내기 2005 년 생 백뚜르는 저희가 처음 마을 공립학교에 들어갔던 때부터 우리와 꾸준히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공립학교 9 학년을 마치며 저희가 소개한 대학 (부산 호산나 78와 ANC 온누리 78에서 지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지난 5 월 한국어 통역학과 2 학년을 마치고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이번 여름 단기 팀이 오셨을 때 통역 도우미로 백뚜르가 대학교 친구 셋(누나 1 명, 형 2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 러시아 누나는 한국말도 잘하지만 ㅇㅈ를 아주 잘 믿는 신앙 좋은 누나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콜리지에는 신앙 좋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에서 온 신앙 좋은 두 형제가 첫 학기 백뚜르의 룸메이트였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 백뚜르가 이번 여름 방학을 시작하고 6 월 한 달 동안 여덟명의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밥티스트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납치해서 장기를 파는) 크리스찬이라고 선동하고, 공부하던 자녀들을 더이상 보내지 않기도 하고, 더러는 그런 소문에 휘둘러 센터에 더이상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백뚜르는 (명목상) ㅇㅈ이면서도 저희의 소리없는 advocate 이 되어주고 있는셈입니다.

나면서 부터 ㅇㅈ사람의 짝 달린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었던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신 주께서 앞으로 어떻게 그를 만나주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센터에서는 6 월엔 백뚜르가 8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원래 14 명 신청)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 두분이 여름내내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8 월 중순에 막내를 대학에 내려놓고 8 월 말까지 미국에 머물게 됩니다. 이젠 정말 아내와 저만 키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느낌이 좀 묘합니다. 형아 누나 엄마 아빠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은 택함이가 언젠가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넘치도록 받은 사랑이 삶의 문제를 넉넉히 풀어가는 자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미국 MK 들은 대학 졸업후에 정말 케어가 필

요하다"고 하신 MK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피부로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하람, 주영, 택함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택함이와 벡뚜르를 보면서 '아름다운 청춘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청춘은 어땠나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저도 분명 청춘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바람이 모두를 각기 제 삶의 방향으로 흩어버려 서로 연락도 안 한 날들이 오래되었는데, 돌아보면 그 어린시절, 젊은시절의 친구들이 저의 아름다운 (때론 아픈) 청춘의 추억이고 소중한 인연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문득 그리워지네요...

이번 방문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 기억과 기도로 서로의 소중한 한 모퉁이를 교차하는 여러분과 차 한 잔 앞에 놓고 지난 세월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윤평안 드림



기도해주세요

1. 평안, 회복, 하람, 주영, 택함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2. 마을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3.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스태프를 만날 수 있도록
4. 본국일정 모든 만남 가운데 피차 위로와 은혜가 나누어지도록